

02

가족



가구현황

1인 가구

가구주

한부모 가구

다문화 가구

혼인과 이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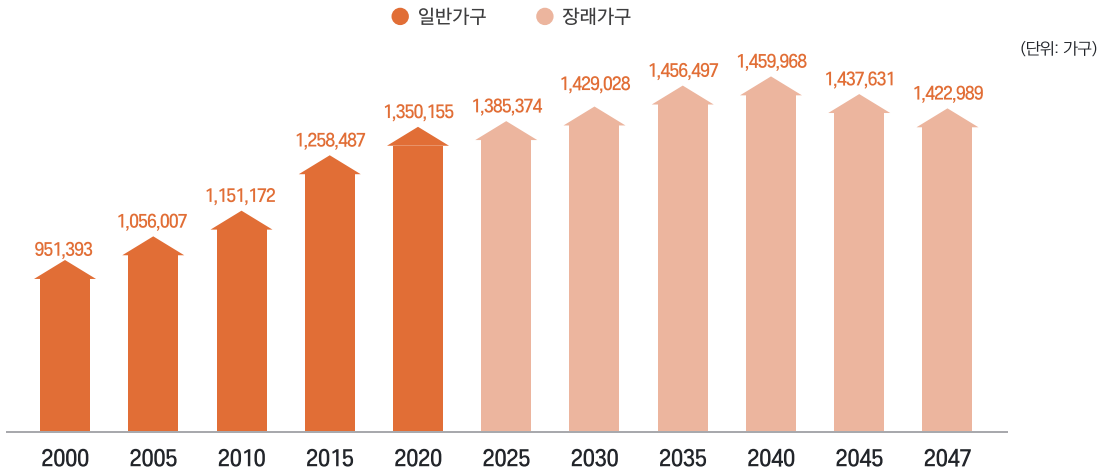
가족생활 및 가족관

2. 가족

가구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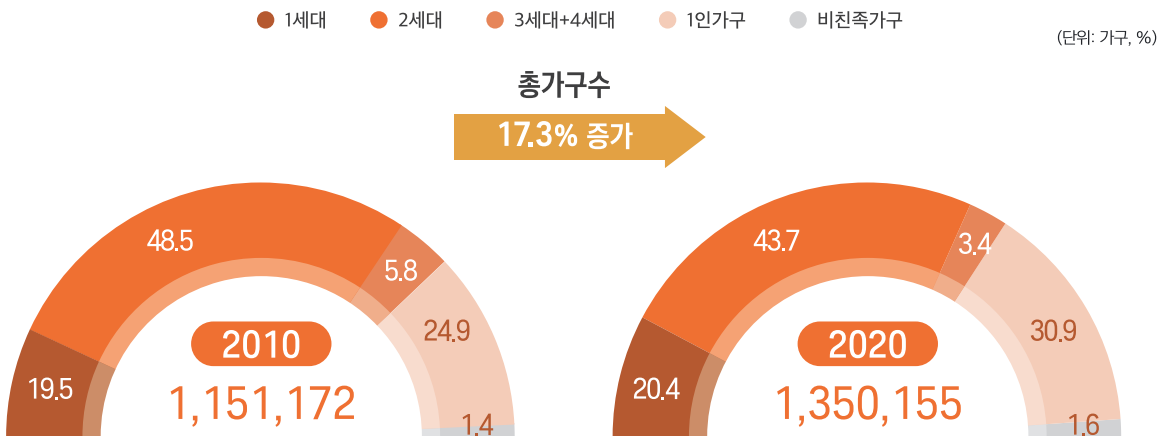
일반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4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

일반가구와 장래가구(2000~2047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(2020년 이전), 「장래가구추계」(2021년 이후), KOSIS, (표 2-1)

세대구성별 가구 분포(2010, 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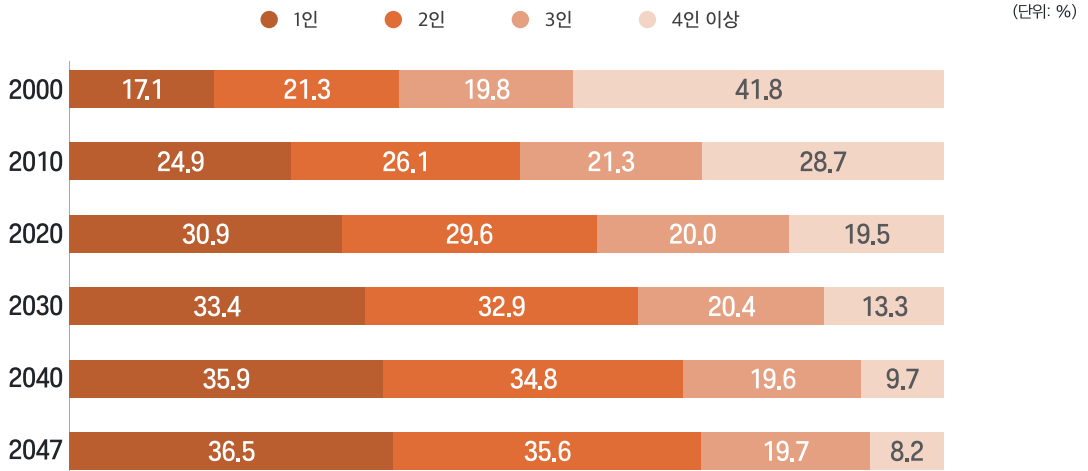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3)

- 2020년 일반가구는 2010년 대비 17.3% 증가해 총 1,350,155가구이고, 이와 같은 증가세는 204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
- 2010년 대비 2020년 일반가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일반가구의 구성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음
- 최근 10년 사이, 부부+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와 부모+부부+자녀로 구성된 3~4세대 가구 비중이 각각 4.8%p, 2.4%p 감소하고, 1인 가구 비중이 6.0%p 증가함

1인 가구

1인 가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, 고령인구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음

가구원 수 변화(2000~2047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(2020년 이전), 「장래가구추계」(2021년 이후), KOSIS, (표 2-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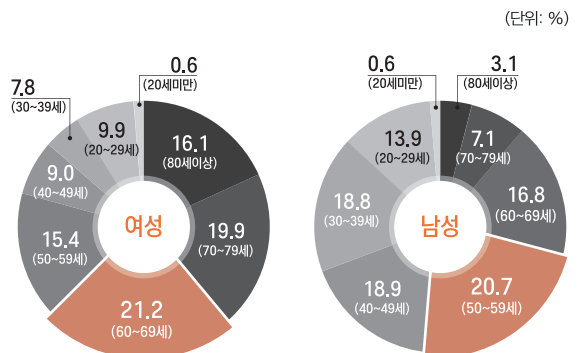
성별 1인 가구(2018~2020)



(단위: %)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5)

연령별 1인 가구(2020)



(단위: %)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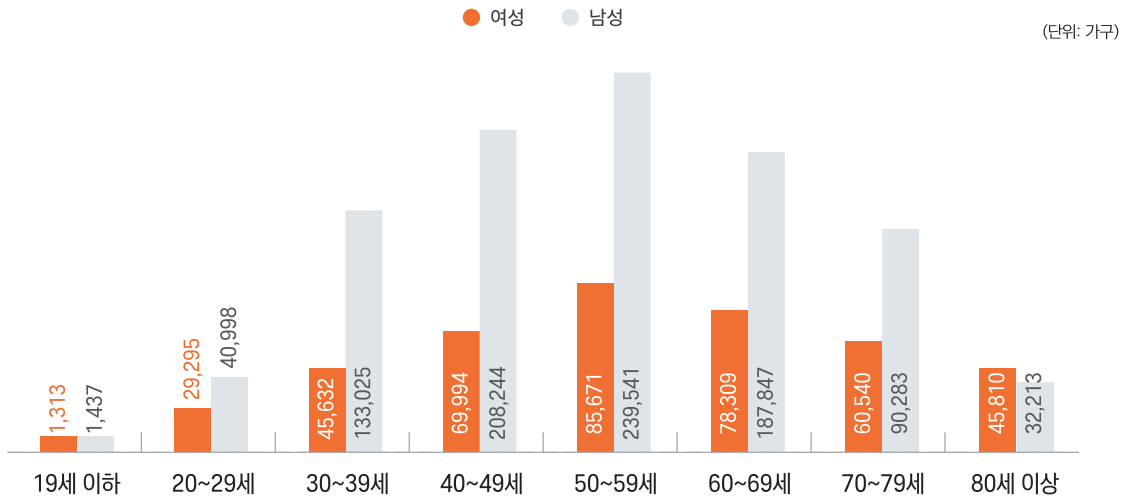
- 2020년 1인 가구는 2010년대 대비 6.0%p 성장한 30.9%이고 204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37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- 최근 3년 자료에 따르면,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2020년 기준,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연령대는 여성은 60대(21.2%), 남성은 50대(20.7%)가 가장 많음. 특히,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60대 이상의 비율은 여성 57.2%, 남성 27.0%로 1인 가구의 고령화 현상이 특징적임

2. 가족

가구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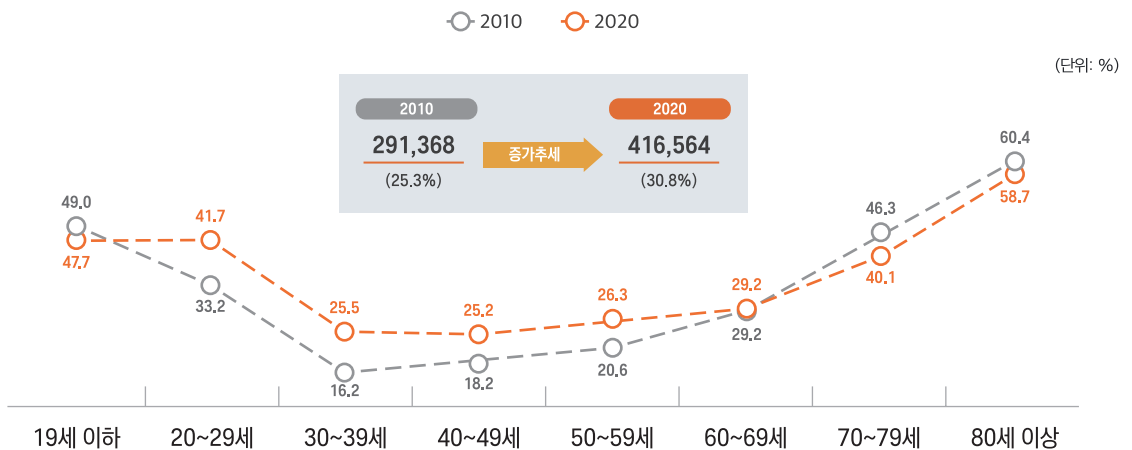
2020년 가구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편이나, 증가추세에 있음

가구주의 성별·연령별 가구 분포(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. (표 2-4)

여성가구주 비율 변화(2010, 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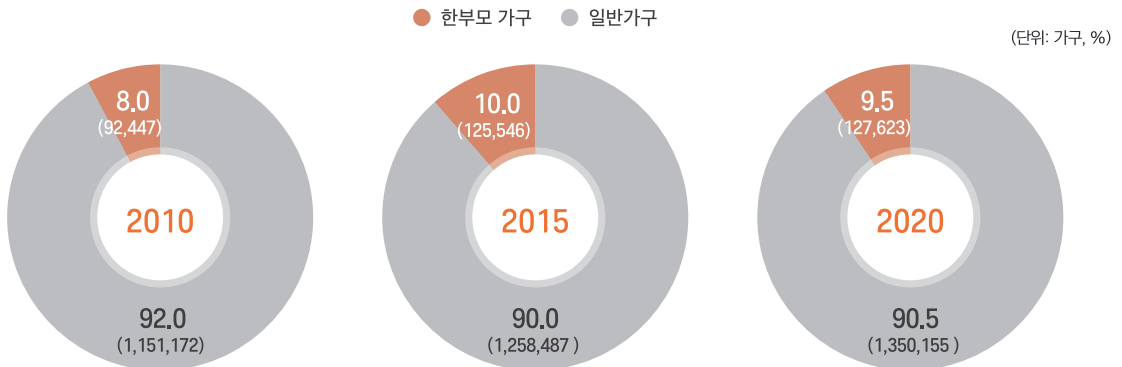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. (표 2-4)

- 전체 가구주 대비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10년 25.3%였으나 2020년 30.8%로 5.5%p 증가함
- 연령별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이 높고 30~60대가 낮은 U자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, 80대 이상 여성 가구주 비율이 매우 높음

한부모 가구

2020년 한부모 가구는 2015년보다 0.5%p 감소한 9.5%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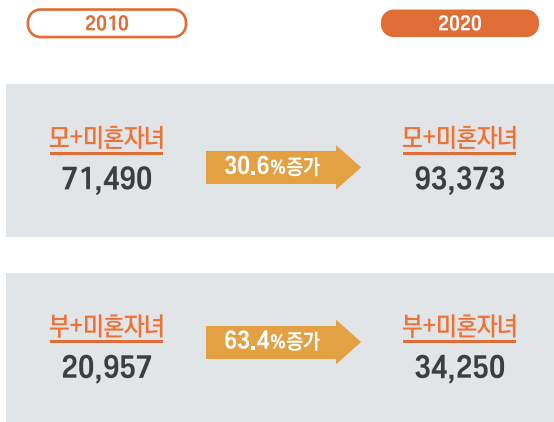
한부모 가구(2010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7)

성별 한부모 가구(2010, 2020)

(단위: 가구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7)

시군별 한부모 가구(2020)
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, (표 2-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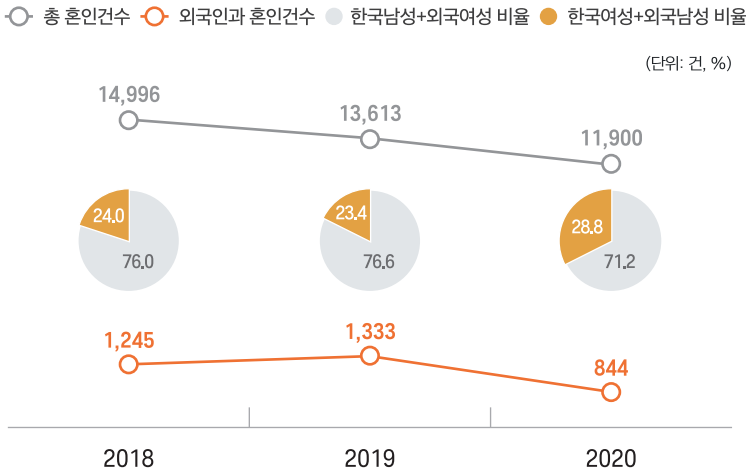
- 일반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는 2010년 8.0%, 2015년 10.5%, 2020년 9.5%로 증감을 반복함
- 편모가구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10년 사이, 편모가구는 30.6%, 편부가구는 63.4% 증가함
- 2020년 경남 한부모 가구 평균인 9.5% 수준이 넘는 시군은 김해(10.5%), 진주(10.2%), 양산(10.1%), 창원(10.1%), 통영(9.9%) 총 5개 지역임

2. 가족

다문화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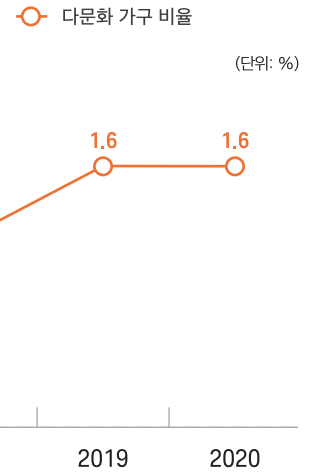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국제 결혼건수는 36.7% 감소함

외국인과의 혼인건수(2018~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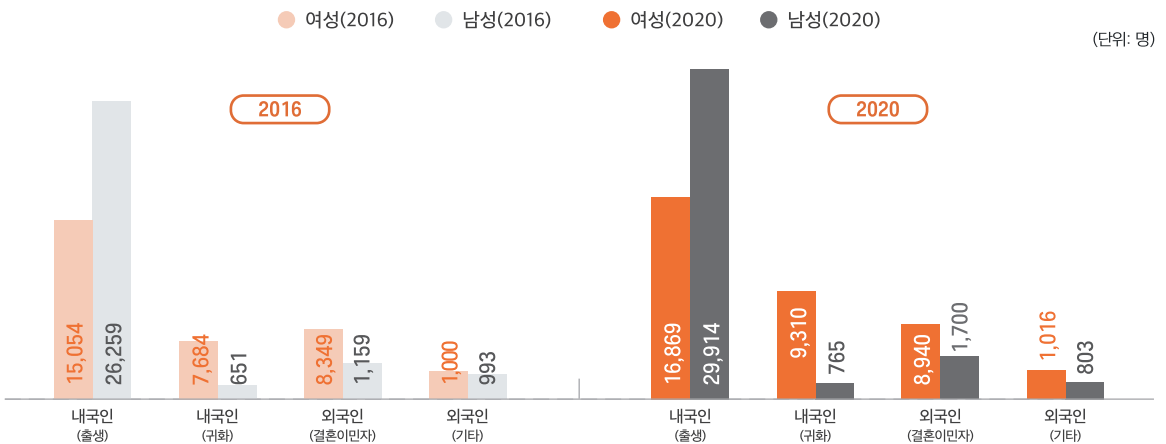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. (표 2-18)

다문화 가구(2018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. (표 2-8)

다문화 가구원 구성(2016, 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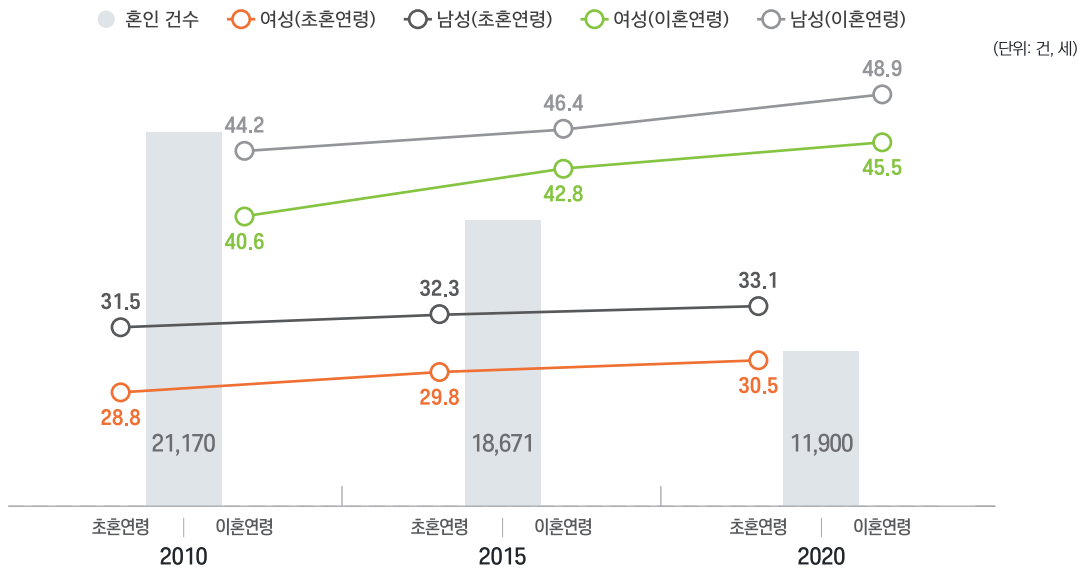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, KOSIS. (표 2-9)

-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18년 1,245건에서 2019년 1,333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,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844건으로 감소함
- 일반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는 2018년 1.5%에서 2020년 1.6%로 0.1%p 증가함
- 다문화 가구 구성원 중 내국인은 출생과 귀화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규모는 다문화 가구원의 약 30%를 차지함

혼인과 이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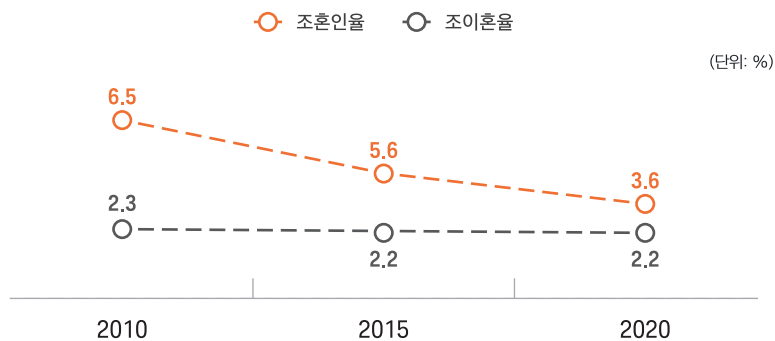
총 혼인건수는 감소세이며, 여성과 남성의 초혼 및 이혼 연령은 높아짐

혼인 건수와 성별 초혼·이혼 연령(2010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, (표 2-11, 표 2-13)

조혼인율·조이혼율(2010~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KOSIS, (표 2-11, 표 2-14)

- 총 혼인건수는 2010년 21,170건에서 2020년 11,900건으로 43.8% 감소했고,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여성과 남성 모두 초혼 연령과 이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
- 조혼인율은 2010년 6.5%에서 2020년 3.6%로 2.9%p 감소했고, 조이혼율은 2010년 2.3%에서 2020년 2.2%로 0.1%p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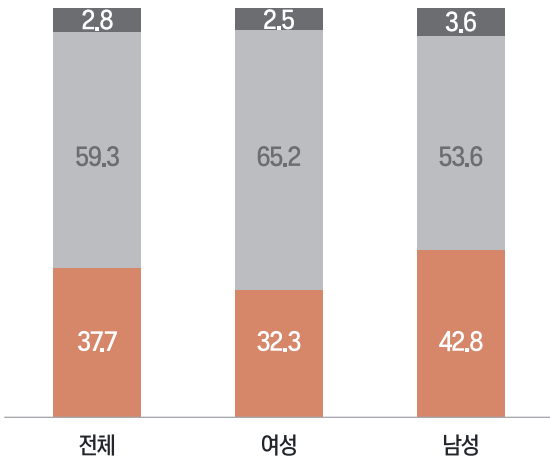
2. 가족

가족생활 및 가족관

여성의 65.2%는 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함

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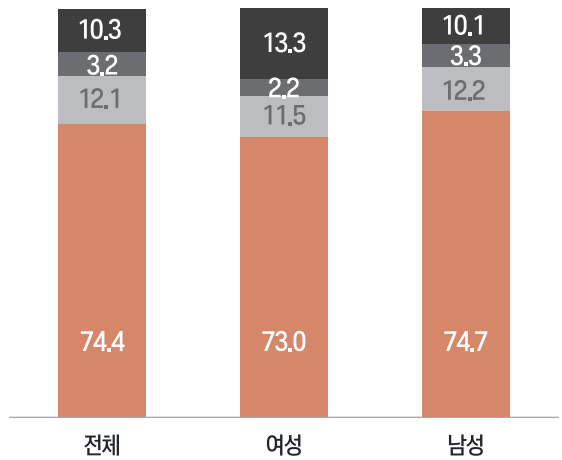
● 아내 ● 공평하게 분담 ● 남편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KOSIS. (표 2-24)

성별 가사분담 실태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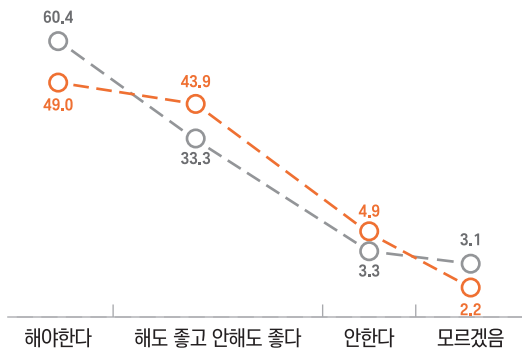
● 아내 ● 공평하게 분담 ● 남편 ● 여건되는 사람
(단위: %)



자료: 경상남도, 「경남사회조사」,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포털. (표 2-25)

결혼에 대한 견해(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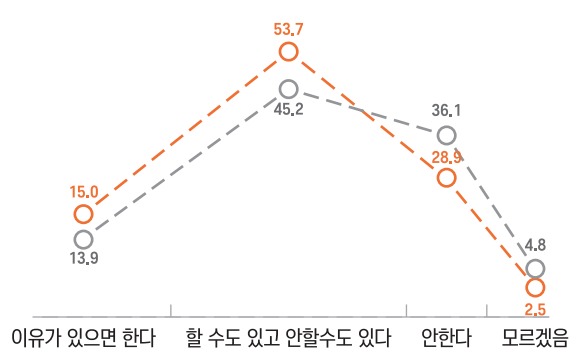
○ 여성 ○ 남성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KOSIS. (표 2-28)

이혼에 대한 견해(2020)

○ 여성 ○ 남성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KOSIS. (표 2-29)

- 2020년 남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65.2%로 남성 53.6%보다 11.6%p 많으나,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분담을 하는 가구는 약 12% 수준이고, 주로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
- 2020년 여성은 결혼과 이혼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결혼을 '해도 안해도 좋다'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43.9%로 남성보다 10.6%p 많고, 이혼도 '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'와 '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'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68.7%로 남성보다 9.6%p 많음